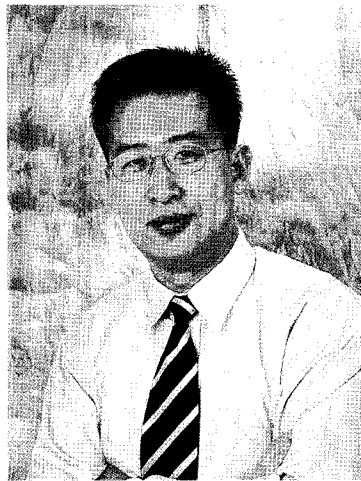


인터넷 시대 IT 매거진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문규학/
정보시대 대표이사



용한다면 독자와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으며, 독자와 친밀도는 매체의 성공 요소에서 으뜸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가 종이 매체의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이라는 양식으로 옮기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다시 생각할 부분이다.

둘째로는 영역의 세분화 현상이다. 이제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매스 미디어(Mass Media)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더 특화된 독자층을 겨냥한 매체로 변화할 것이다. 컴퓨터라는 어찌 보면 특화 영역을 다루는 매체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독자의 요구에 따라 매체에서 다루는 정보의 내용이 분화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정보 사회라고 할 만큼 연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있으며 산업 분야도 빠른 속도로 나누어지고 있다. 일례로 불과 10여 년 전, 혹은 20여 년 전만 해도 컴퓨터 산업이라는 통칭으로 가능했던 산업 부문이 지금은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물론 좀 더 세분화된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컴퓨터 기술이 사회 각 부분으로 흡수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문 매체도 영역이 더 세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가 컴퓨터의 시대, 혹은 인터넷의 시대라고 해도 종이 매체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절히 수용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KCRC**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그 물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만이 21세기를 앞서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매체 환경에도 21세기는 새로운 도전과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물론 정보화 사회라는 미래상에서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주도했던 컴퓨터 기술을 다루는 매체 또한 적잖은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컴퓨터 매체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이라는 발전된 매체의 등장이다. 매체 환경에서 인터넷이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진정한 디지털 형태의 매체 환경을 가능케 한 것이 인터넷이며 원론적으로는 매체 발행의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허물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자체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 만큼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매체 발행이 가능해진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주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무엇보다도 독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종이 매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독자의 편지를 받아서 편집 방향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양방향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종이 매체가 갖는 제약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독자의 의견 수렴이 더욱 쉬워지고 이를 통해 매체의 내용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것이며 인터넷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기존 매체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체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양방향으로 정보가 수용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충분히 활